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5
----------	------

발의연월일 : 2023. 10. 20.

발 의 자 : 이명녀, 문희성, 정재환,
안영호

1. 주 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이후 ‘일본해’ 표기를 공식화함.
- 나.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하에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해’ 단독 표기 또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요구해 왔음.
- 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와 공식화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함.
- 라.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도시구군의회의장

4. 결의문(안) : 붙임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동해’로 표기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8월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이대로 묵과하고 있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1만 중구 주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 로 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동해’ 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